

병불련 회원들 ‘찾아가는 의료봉사’

제천 양파축제 현장 찾아 지역주민 대상 진료활동

병원에 있어야 할 의사들이 양파 축제에는 무슨 일로 왔을까. 제천시 한수면의 양파축제에 한창인 7월 13일,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뜨거운 태양 아래 지질 법도 하지만, 40여명의 의료진과 80여명의 봉사자들은 한명이라도 더 진료를 해야겠다는 마음에서인지 더 열심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이하 병불련) 회원들이 병원이 아닌 한수면으로 환자를 찾아나선 이유는 3월 월악산 덕주사(주지 원경)가 주최한 제2회 ‘행복 속으로 가는 의료봉사’ 후원을 시작으로 덕주사와 인연을 맺고 ‘지속적인 후원과 교류’를 약속했기 때문. 이런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제3회 의료봉사도 가능했고, 의료포교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겠다는 발원도 더욱 굳건해졌다.

병불련이 덕주사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한 것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2007년 6월 주지 원경 스님이 부임하고 나서부터 시작 된 것이다.

원경 스님은 “조계사에서 살면서 도시 사람과 지방 사람들 사이에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제천으로 와 보니 경제·환경 여건으로 인해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참고 살아야 하는 시민들이 안타까워 의료봉사활동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수행과 실천이 하나라고 생각했기에 ‘행복 속으로 가는 의료봉사 팀’을 조직해 2007년 9월 제1회 의료봉사를 실시, 한수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안경을 맞춰드린 것을 비롯해 한방 및 내과 진료, 미용봉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시작한 의료 봉사가 3회째에 이르자 더 많은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게 됐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양파축제에 참가한 모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 뜻에 동참하고자 병불련, ‘반갑다 연우야’, 덕주사신도회, 마하연 선원신도회, 고려아카데미, 동주병원 등도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병불련 회원들이 7월 13일 덕주사에서 어르신들에게 발마사지를 해주고 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치료과진자 동차, EKG(심전도기), 초소형 혈액 검사기, 초음파기, 혈당검사기, 혈압기 등의 최첨단 의료장비들이 동원돼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과 똑같이 세밀하게 진찰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병불련 류재환 회장은 “진료 받은 어르신들 모두 큰 병이 발견되지

않아 너무 기쁘다”며 “지난 분기 봉사 때 보다 더 많은 분들을 진료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더 꾸준한 의료봉사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과 수술을 받고 회복도 되지 않은 몸으로 봉사에 나선 류 회장은 “오로지 봉사를 하기위해 부처님께 기도해서 가피를 입고 온 것 같다”

손효선 기자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 광명선원 주지 현문 스님

“납골당도 포교 방법이죠”

납골당을 통해 포교를 행하고 있는 스님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소재한 광명선원 주지 현문 스님이다. 스님은 “납골당은 포교뿐만 아니라 자연 훼손을 막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발언을 열었다.

평소 스님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사찰이 청주 도심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고민을 하던 중 납골당을 떠올리게 됐다고 한다.

“납골당의 경우 대부분이 교외에 있어 차를 타고 2-3시간 이동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다”며 “그렇기에 교류가 뜸해지면 살아생전 애지중지했던 부모나 형제, 자식도 죽고 나면 남과 같고 혐오스럽게 변하는 것 같다”는 게 스님의 경험담이다.

이에 스님은 살고 있는 건물 6층을 법당으로, 4층을 납골당으



로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화장 문화였기 때문에 다시금 화장 문화를 되살려 환경 훼손을 막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납골당과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은 무슨 관계일까. 이에 대해 스님은 “소위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좋은 산 혹은 땅을 사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죽더라도 하면 묻을 곳이 없어 고민하

저소득층 위해 납골당 500여개 분양 예정

“장애우·군부대 위한 포교사업도 나설 것”

로 만들었다. 5층과 3층은 BBS 청주불교방송에 무상으로 대여했다.

스님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포교당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며 “법당을 통한 포교, 납골당을 통한 포교, 그리고 BBS 청주불교방송을 통한 언론 포교가 한 건물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납골당의 경우 종교 불문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500여개를 무료 분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4월 4일 문을 연 납골당은 400여 기의 납골을 모실 수가 있다.

물론 스님은 종교를 불문하고 납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교와 친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24시간 법사회인사를 모시고 법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는 것을 봐왔다”며 “납골당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부자라고 해서 큰 산 하나를 차지할 일도 없어질 것이고, 가난하다고 해서 죽음에 슬퍼할 겨를 없이 걱정부터 해야 할 일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스님은 납골당이 정착 되면 군부대, 장애우 등을 위해 더 많은 포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님께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를 묻자 “아차피 절집 사업은 환원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에 베풀는 것보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을 진행하며 거칠고 거만한 사람은 하심을 갖게 해 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이 우리 불교와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사찰로 어린이수련회 가요”

문화재 교육·한문 학습 등 프로그램 다채

템플스테이와는 또 다른 매력.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불교학교를 진행하는 사찰들이 늘어나고 있다.

충청지역의 많은 사찰들이 아이들의 눈에 맞춘 자연 친화·문화재 교육·수행 수련·한문 학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이한 자녀들에게 사찰에서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를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현재 충청지역 대표 사찰이라 불리는 법주사(주지 노현), 마곡사(주지 범웅), 수덕사(주지 응산)도 여름 수련회를 시행하고 있다.

법주사의 경우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 불교 캠프를 성황리에 마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수련회를 마련, 8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마곡사의 경우는 어린이 수련회만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차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2차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다.

이밖에도 ▲예산 수덕사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청주 관음사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공주 영평사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각각 어린이 수련회를 진행한다.

손효선 기자

공주 붓다라이온스 회장 취임식

경로 위안잔치 마련·복지시설에 쌀 전달도

공주 붓다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식 및 경로 위안잔치가 7월 5일 공주 공내루 야외무대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범용(마곡사 주지), 환성(영평사 주지), 해월(원호사 주지) 스님과 이준원 공주 시장, 양준보 공주시 의원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붓다라이온스클럽 신입회장으로 취임한 이종철씨는 “클럽이 보

시와 봉사를 통한 참된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앞으로 회원·이웃간 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며,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클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장·취임식에 앞서 이종철 신입회장 앞으로 10kg 쌀 40포가 행사장에 전달됐다. 이는 화한 대신

서광사 53선지식 초창법회 서산 서광사(주지 도신)에서 특별한 법회가 열렸다. 7월 13일 서광사 대웅전에서 중앙승가대학 총장 종법 스님을 초창 법사로 53선지식 초창법회 입제식이 봉행됐다. 이날 종법 스님은 “우리는 인간의

근본인 인과를 믿어야 한다. 인과를 떠나서 무엇을 찾는 것은 옳은 마음이 아닌 사견”이라며 “인간이 바라는 것은 재물·권력·명예인데도 이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니 불자들은 젊음이 있을 때 열심히 수행 정진해 오고 같이 없는 삶을 살라”고 입제 법문을 설했다.

손효선 기자

부처님은 왕 가운데 왕이시고, 성현 가운데 성현이며, 하늘 가운데 하늘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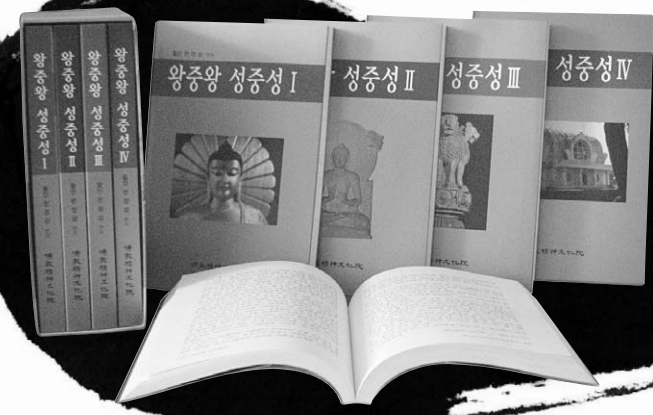


■화안 스님

‘왕중왕성중성’ 王中王 聖中聖

‘세계는 한 꽃이요, 만민은 동체(同體)라는 일념(一念)으로 부처님의 언행이 고스란히 담긴 대장경을 50년간 탐독해온 화안스님 정진의 결실로, 부처님의 일생을 經과 律로써 모든 것을 풀어낸 역작...

■화안(한정섭)스님 편저 | 불교정신문화원 | 전 4권 4만 8천원



불교 고리발전의 근거가 된 부처님의 말씀과 일대기를 체계 있게 총 정리하였습니다.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불교의 이치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바른길을 걸으신 부처님의 행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정신문화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사)한국불교금강선원
구입문의 : 02)969-2410

부처님의 일생에 관련된 사진 자료, 여러 경전의 말씀, 승단의 계율 등 부처님의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한국불교의 찬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법수선재



수선재 역음, 문화영 원저 · 328쪽 · 값 12,000원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 죽음을 준비하는 법 】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수선재 역음 · 356쪽 · 값 12,000원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 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